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A Study on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Le Corbusier's Furniture Design with Alvar Aalto's

이진영* / Lee, Jin-Young

Abstract

Architects and designers of the 20th Century made various efforts to establish new design languages reflecting the changes of society, the times, and environment. They used furniture, especially chairs, as controversial items of aesthetic value, society and ideology. Le Corbusier and Alvar Aalto are furniture designers as well as architects, who adopted this 'spirit of the times' actively and have greatly contributed to modernism.

This study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design since modernism, by comparing these two designers' furniture design. It also covers the common factors in modern furniture design, and analyses their individuality and likeness in design.

The following is a comparison of furniture design by Le Corbusier and Alvar Aalto.

Le Courbusier linked International design and Aalto linked Rational design and Organic concept design to their furniture, just as they did in their architecture. They were able to establish the base of modern furniture design by adapting new concepts and pursuing humanism. In structure, Le Corbusier's furniture is simple and proportional. It demonstrates a sophisticated geometric composition, mechanical beauty. On the other hand, Aalto rationally linked nature with human requirements and his furniture is organic and in harmony with geometric structure. In function, Le Corbusier's furniture is standardized and prefabricated. He designed for the user so they could choose to use the furniture efficiently to suit their needs. In comparison with Le Corbusier, Aalto invented the 'Stacking Chair' which allows a more effective use of space and reflected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to improve the user's comfort. In materials and techniques, Le Corbusier used new materials like metal or leather, and attempted new ways such as welding, prefabric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production. On the contrary, Alto mainly used birch, which is the traditional material in Finland, and tried new bent wood techniques and joining methods.

키워드 : Le Corbusier, Alvar Aalto, Furniture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세기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사회적,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수립하고자 다양한 유형의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그 중 가구-특히 의자-를 미적이고 사회적이며 이념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와 알바 알토(Alvar Aalto)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더니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축가이자 가구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르 꼬르뷔지에와 알토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모더니즘에

서 추구되어 온 이념들을 바탕으로 건축분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나, 가구디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그 예가 많지 않으며, 특히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가구디자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디자인사의 맥락에서 모더니즘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르 꼬르뷔지에와 알토의 가구디자인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체계를 파악하고, 모더니즘 정신의 해석상에서 두 사람의 관점으로 인한 디자인 상의 개별성과 유사성을 밝혀냄으로써, 모더니즘 이후의 디자인의 다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 디자인의 흐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미래 디자인에 대한 예측과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정회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강사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결정적 모더니즘 시기를 중심으로 건축과 가구와의 관계 및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작품세계를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파악하고 대표적 가구디자인 가운데 의자 디자인을 중심으로 특성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먼저, 르 꼬르뷔지에와 알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결정적 모더니즘 시기에 나타난 디자인 사상을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두 사람의 작품세계와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구디자인에서 표출되었는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도출된 사항과 그들의 대표 작품들을 중심으로 르 꼬르뷔지에와 알토의 가구디자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2.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모더니즘 시대의 배경

전쟁 이전의 시대에는 19세기 자본주의 산물이 포함하고 있는 산업도시와 무절제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었지만,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은 그때까지 존재해왔던 집권 정부 조직과 붕괴를 초래하였고,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 직업, 주택, 안정, 민주주의 등의 개념들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디자인도 그 생존을 위하여 19세기의 장인 정신에서 비롯된 철충적인 전통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되었다. 즉 산업사회의 적응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급진적 방식으로 변형되어야만 하였으며 새롭게 대두되는 광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과 유형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변화와 운동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건축가들은 역사적인 정적주의에 도전하였으며, 위계를 파괴하고 유동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또한 기계의 추상성을 발견하고, 건축을 산업적인 공업 제품으로 여기면서 설계하기 시작하였다.¹⁾

모더니즘 시대의 디자인은 모든 예술을 궁극적으로 종합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한 일관된 종합예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가들은 그들이 설계한 건물에 스스로 디자인한 가구를 배치하였으며 그들의 사상을 건축에서부터 가구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표현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²⁾

결정적 모더니즘의 시대는 192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의 시기로, 공업제품과 같이 일정하게 규격화된 기하학적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언어를 발견하고자 한 국제주의와 초기 모더니즘 시대의 자연주의가 발전되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자연의 원리에 대한 본질적 해석을 전개시킨 유기주의로 발전해 나아갔다.

2.2. 국제주의 디자인과 유기주의 디자인

(1) 국제주의 디자인³⁾

모더니즘 시대의 성립기인 초기 모더니즘 시대의 기능주의 건축의 특성은 과거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지 않고, 수직, 수평의 직선 혹은 평면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물게 사면, 곡면, 곡선이 사용되었다. 색채는 백색을 기조로 하며 경우에 따라 흑색이나 회색을 사용하거나, 재료 본연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조형적 특색을 갖는 건축의 출현은 건축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기능을 만족시키면 자동적으로 심미성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기능주의는 세계 제1차 대전 후 스위스에서 C.I.A.M(Congres Internationale d'Architecture Moderne)이 결성되어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함에 따라 재료, 구조, 기술, 기능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공통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디자이너들은 공업제품과 같은 것을 모든 감정적인 것이나 불순한 것, 혹은 애매한 것을 배제하고, 일정하게 규격화된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언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제주의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윤리적 책임 내포: 도시 계획, 건축 그리고 가구 생산을 사회적 진보와 민주적 교육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에 있어서의 형태에 대한 탐구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윤리적 책임이 따라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경제성 고려: 토지 이용 뿐만 아니라 건물 및 가구에도 최대한도의 경제성을 적용하는 것이다.

③ 표준화 및 조립화: 도시계획에서 가구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공업기술, 표준화, 그리고 조립화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④ 형태의 합리성: 형태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능적 구조적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함을 말한다. 즉, 내부와 외부공간을 기능적으로 일치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솔

3)국제주의 양식은 그 이론과 작품들이 1932년에 헤리-러셀 히치콕(Herry-Russell Hitchcock)과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이 발간한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그 이듬해 뉴욕 현대미술관이 주최한 '근대 건축전'에서 국제주의 양식을 묘사한 작품이 전시되면서 그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1)Lesnikowski, Wojciech G.,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박순관·이기민 역, 도서출판 국제, 1993, pp.422-424

2)배소현, 현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가구에 나타난 모더니즘, 영남대 석사논문, 1996, pp.10-11

직한 구조와 표준화된 부재로서 불필요한 세부 표현과 장식을 배제하는 것이다.⁴⁾

(2) 유기주의 디자인

유기적 디자인은 디자인 개념을 자연환경에 부여한다는 것으로, 유기적 디자이너들은 인간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자연미의 진가를 깨닫게 되어 자신과 자연 세계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초기 모더니즘 시대의 유기주의는 「건축의 7개 조명들(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1891)」에서 설명되었듯이 자연을 중시하는 사상으로서 자연의 진실을 작가의 사상으로 승화시켜 디자인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정적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위대한 건축물은 자연을 모티브로 하므로, 항상 자연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거기서 유기적 감각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훌륭한 건축은 자연 그대로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형태와 방법으로 전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즉, 유기적 운동에 있어서 최상의 신조는 모든 물건이 자연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이 유기적 디자인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자연의 원리에 대한 본질적 해석을 전개시킨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알토에 의해서 그 시대의 보편적 성격으로 평가되었던 국제주의 양식과 정면으로 양립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전개되었다.

유기적 디자인은 기술적 혁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재료나 과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재료와 과정을 관념적으로 이끌어 내는 디자인 개념을 표현하는 데에 더 중점적으로 이용되었다.

유기주의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자연적 요소: 인공재료들 보다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색조를 가진 자연재료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② 개인화된 요소: 모든 사람의 기본적 요구사항이 동일하다는 합리주의 특유의 가설과 공업화와 연관된 표준화를 거부하고, 경우마다 다른 정서적 요소를 중시한다.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미의 다양성과 개별적인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한다.

③ 전통적 요소: 디자인은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인격에 의해서도 성격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물건이 사용되고 제작되는 지역의 전통에 의해서도 성격이 지배됨을 의미한다.

3.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사상과 가구 디자인 전개

4) Lampugnani, M., 현대건축론, 윤재희·지연순 역, 세진사, 1992, pp.151-153

5) Lesnikowski, Wojciech G., Op. Cit., pp.321-326

3.1. 르 꼬르뷔지에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1)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사상

1887년 스위스 태생의 르 꼬르뷔지에에는 모더니즘건축의 선구자인 오귀스트 쉬아지(Auguste Choisy)와 페르(Perrt)를 통해 프랑스 합리주의 이론과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배웠고, 독일의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대량생산과 기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⁶⁾

르 꼬르뷔지에에는 기계적 질서로서의 건축, 과거와 현대의 모든 건축 역시 기하학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기하학적 의지를 통해 새로운 건축적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에 의하여 기계적 윤리는 새로운 예술적 형상을 취하게 된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집=기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계로서의 집의 성격을 ‘대지와 내적 요구에 가장 적합한 기하학적 질서와 단순성’으로 여기게 되었다. 즉, 기하학의 원리를 추종하는 건축이야말로 과학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⁷⁾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서 건축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상징적 의미는 르 꼬르뷔지에의 위에서 언급한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르 꼬르뷔지에가 생각한 기계의 의미는 다른 모더니즘 건축가와와는 달리 매우 다양하였다. 레이너 밴햄(Reyner Banham)의 저서 「제1기계 시대의 이론과 디자인(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에서 르 꼬르뷔지에가 기계에 대하여 부여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주택의 표준화에 대량생산, ② 새로운 생활에 대응되는 기능, ③ 기계미학, ④ 기계의 추상성에 대응한 플라톤적 입체, ⑤ 합리적 정신에 근거한 기하학적 비례 질서, ⑥ 합리적 정신에 바탕을 둔 기하학 정신이다. 이처럼 그가 정의한 기계는 건축의 물리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형태와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기계를 각각 기술적 기계, 기능적 기계, 기호적 기계로 분류하여, 각자 지니고 있는 의미를 폭넓게 확장하였음을 보여 준다.⁸⁾

여기서 대량생산에 대한 르 꼬르뷔지에의 개념은 바우하우스의 건축가들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바우하우스의 건축가들에게 주택의 대량생산은 조명기구, 금속공예, 집기 등의 생산과 같은 논리에서 실제적인 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르 꼬르뷔지에에게 주택의 대량생산은 이상적 지역사회를 위한 개념이자 이상적 도시의 일부분이었다. 또한 그는 반복의 결과로 표준이 만들어지며, 유형의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

6) 김진숙, Cubism과 Le Corbusier 작품의 관련성 고찰, 전남대 석사논문, 1996, pp.36-37

7) 배소현, Op. Cit., pp.59-60

8) 김광현, Le Corbusier 건축의 자기언급적 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9권 2호, 1993, pp.97-105

다. 주거를 위한 '세포(Cellular)'체계의 개념을 통해 르 꼬르뷔지에가 제시한 여러 안들은 대량생산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량생산은 그의 이념을 실제의 해석으로 전개하는 형태적인 이론이며 이상적 형태의 산업사회는 대량생산을 통해 건설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⁹⁾

(2)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디자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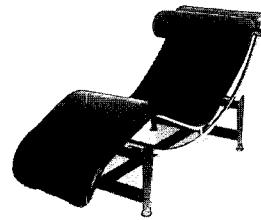
르 꼬르뷔지에는 '건축의 영역이 가정 설비의 모든 세부적인 것, 주택 뿐 아니라 거리, 그리고 그 둘을 훨씬 초월한 더 넓은 세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르 꼬르뷔지에는 마이클 토네(Michael Thonet)에 의해서 19세기 초반에 디자인된 곡목의자(Bentwood Chair)를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한 원형의자를 국제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현대 실내디자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는 1925년 「근대 건축사 연감(Almanach d'architecture Moderne)」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확실히 가장 보편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의자인 토네의 증기를 쏘인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를 소개했다. 또한 우리는 이 의자의 수백만 개 유사품이 전 세계에서 사용될 지라도 그 의자 자체가 갖는 고품질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

토네의 의자들이 르 꼬르뷔지에의 눈에 포착된 이유를 이해하기는 쉽다. 국제 박람회에 전시된 그 모델은 기능적일 뿐 아니라 의자를 공간에서의 조각 작품으로 보려는 르 꼬르뷔지에의 생각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태리 건축가 겸 건축사학자인 레나토 데 푸스코(Renato De Fusco)가 시사한 바와 같이, 그 특별한 안락의자는 가장 전형적인 토네 의자들 중 하나를 르 꼬르뷔지에가 그 자신의 디자인에 맞도록 재창조한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 의자의 비율들은 점차 수정되어 왔다고 데 푸스코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좌석은 완벽한 원형이 되었으며 등받이는 허리를 올바르게 지탱해 주기 위해 어깨 아래로 낮아졌다. 그리고 두 개의 곡선이 팔걸이와 낮은 등받이를 느슨하게 연결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세기의 취향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순수주의자의 그림과 조각의 특징들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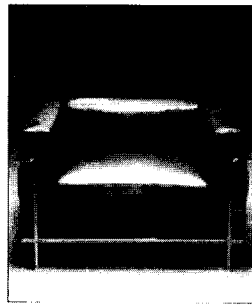
르 꼬르뷔지에가 디자인한 최초의 의자, 테이블, 진열장 그룹은 1928년에 젊은 프랑스 건축가 샤를로트 빠리앙(Charlotte Perriand)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빠리앙은 1927년에 르 꼬르뷔지에의 아틀리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가구 그룹은 르 꼬르뷔지에와 빠리앙에 의해 개조된 빌 다브레(Ville d'Avray)에 있는 한 주택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여기에는 잘 알려진, 등과 발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긴 안락의자(reclining chair-Chaise longue), 등받이가 있는 바스쿨란트(arm chair-Basculant), 그랜드 컴폴트(easy chair-Grand

Com-fort)가 포함되었다. 르 꼬르뷔지에에 의해 디자인된 아파트모델에 전시되었을 때인 1929년에 간행된 「가구 모험(The Furniture Adventure)」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이 의자들 둘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영국군대 장교단의 의자를 개조한 것인, 긴 안락의자에 관해 그는 14마력 스포츠카 모델 보와쟁(Voisin)을 연상한다고 말한다. "나는 보와쟁에 앉아 단숨에 500km를 여행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나의 거실을 설계할 때 나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 여기서 우리는 휴식을 목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한다. 우리는 그것을 자전거 금속관을 이용해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거대한 조랑말 가죽으로 덮었다. 그것은 매우 가벼워서 발로 쉽게 밀 수도 있으며 한명의 아이가 거뜬히 옮길 만한 무게다."



<그림 1> 긴 안락의자, 1928

그는 등과 발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긴 안락의자에 관해서는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발을 머리보다 더 높게 공중에 두고 벽난로 선반에 기대어 있는 서부 카우보이를 생각했다. 이것이 완벽한 휴식이다. 등과 발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긴 안락의자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놓여질 수 있다. 내 체중만으로도 그것을 쉽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기술자가 따로 필요 없다. 이것이야말로 휴식을 위한 진정한 기계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림 2> 그랜드 컴폴트, 1928

광택 크롬 프레임 구조 속에 딱 맞게 끼워진 다섯 개의 부풀려진 가죽 쿠션으로 만들어진 그랜드 컴폴트는 전통적인 안락의자를 대체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르 꼬르뷔지에의 모든 '앉기 위한 기계' 가운데 이것이 아마도 가장 덜 기계처럼 보이며, 실제로 모더니즘 운동의 건축가들에 의해 디자인된 대부분의 가구보다 훨씬 더 안락하다.

그림과 조각, 테피스트리를 그의 동적 공간들의 중요요소로 사용했던 것을 보아 르 꼬르뷔지에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기호, 가구, 그리고 다른 인간의 사소한 것들로 주거공간에 장식하기를 고집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3.2. 알바 알토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1)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의 사상

19세기 말 핀란드의 공예가와 예술가들은 핀란드의 정치적인 독립 투쟁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활동했

9)Le Corbusier, The City of Tomorrow, Dover Publication, 1987, pp.220-226

10)배소현, Op. Cit., pp.61-63

다.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민족성과 풍토성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 풍토주의(National Romanticism)'이다.¹¹⁾ 이를 계승한 알바 알토는 핀란드 특유의 재료와 환경이 고려된 독자적인 조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형의 특성은 자연의 생물학적 변화와 인간 환경 속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을 일정한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다. 그의 모티브는 기하학적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곡선, 부채꼴, 불규칙한 조형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¹²⁾ 또한, 새로운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합리적인 접근방법에 바탕을 둔 유기적 건축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알토는 특히 그리스의 건축과 문화를 크게 동경해온 니슈트롬(G. Nyström)¹³⁾으로부터 고전주의의 이론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점은 그의 초기 가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알토의 작품에 있어서 스웨덴의 고전주의 건축가인 군나르 아스플룬드(Gunnar Asplund)의 영향 또한 중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로 아스플룬드가 1925년 파리 아르테코 전시회에 내놓은 '세나(Senna)'라는 팔걸이의자를 응용한 알토의 의자를 볼 수 있으며, 1927년 채택되어진 비푸리(Viipuri) 시립도서관도 1920년 아스플룬드의 스톡홀름 시립도서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토 자신이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알토는 고전주의의 요소를 원형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을 창조적인 작업의 변화 요소로 삼았으며, 이러한 경향을 두고 건축가이며 학자인 이고르 허얼러(Igor Herler)는 1985년 그의 글에서 '가벼운 고전주의'라고 구분하기도 하였다.¹⁴⁾

위에 설명했던 낭만적 풍토주의 성향이야말로 알토의 근본적인 디자인 사상으로 보이며, 고전주의의 영향은 알토에게 있어서 소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초기의 고전주의 스타일로 제작되어진 가구 장식이 말기 기능주의 건축의 부분 장식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알토의 디자인 사상이 기능주의로 변화된 근본적인 영향은 1927년 국제연맹본부의 설계공모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르 꼬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알토는 기능주의로 전환을 하면서도 유럽의 기능주의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의 특성과 풍토성에 적합하게 표현하였다. 기능주의 대표적인 건축가이며 가구디자이너인 르 꼬르뷔지에, 그로피우스,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냉철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기계적인 미와 순수한 형태미의 조화, 통일된 질서만을 추구하여 가구를 제작하였던 것과는 달리, 알토

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민족성, 지역성, 인본주의를 그의 창조물에 더 중점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¹⁵⁾

(2)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전개

이은주는 「알바 알토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알토의 가구디자인을 고전주의 영향을 받은 1919년부터 1927년까지의 초기 가구와 기능주의로 변환하여 1928년부터 1935년까지 제작한 중기 가구, 그리고 아르텍(Artek)을 설립하고 기능주의를 자신의 언어로 승화하여 독특한 건축과 더불어 발전되어진 1936년부터 1976년까지의 말기 가구로 구분 지어 서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알토의 디자인 사상이 확립되어지지 않고 의자디자인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은 초기의 작품보다는 그의 가구디자인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 중기와 말기 가구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알토는 핀란드의 천연자원인 자작나무 숲의 영향을 받아, 당시 의자 프레임의 주재료인 강철관을 탄력적인 자작나무로 대체하였으며, 건축과 가구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과 인체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존 E. 버차드(John E. Burchard)는 「Architectural Record」 1959년 1월호에 '알토는 계단, 테라스, 방, 벽들이 보통 크기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 또 그것을 그의 가구에 응용시켰다.'라고 알토의 디자인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구타임(Gutheim)이 지적하였듯이 알토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항상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가장 근접한 가구디자인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다.

중기 가구디자인 단계에 해당되는 1927년, 알토는 르 꼬르뷔지에의 설계안에서 영향을 받아 투룬사마노마트 건물물 르 꼬르뷔지에의 5원칙¹⁶⁾에 따라서 설계하며, 이에 따라 그의 가구도 발전하게 된다.

1928년 무라메(Murame)교회의 성물 안치소와 농협 건물의 가구디자인을 맡으면서 '휴네칼루다스(Huonekalutedas)'라는 가구 회사의 기술 감독인 오토 코르호넨(Otto Korhonen)을 만난다. 그는 숙련된 장인으로 산업화, 대량생산, 그리고 현대 마케팅 방식들을 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알토에게 보통 의자의 다리를 좌판 측면에 부착함으로써 의자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코르호넨은 알토의 목재성형기법의 가구 제작에 있어 기술적인 면에서 중요한 동업자가 되었다.

같은 해 알토는 농협 건물 내 식당의 배란다와 자신의 집에서 사용할 가구 중 하나인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의 '바실리 의자(Wassily chair)'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금속관 의자의 미학적인 고급적 가치보다도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저렴한

11) Lampugnani, M., Op. Cit., p.135

12)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 조류, 기문당, 1994, pp.85-86

13) Gustaf Nyström : 핀란드의 건축가이며 건축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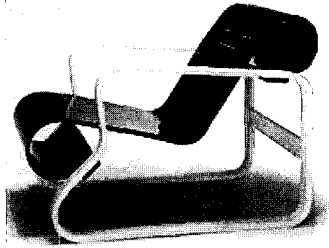
14) 이은주, 알바 알토(Alvar Aalto)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5, p.11

15) Ibid,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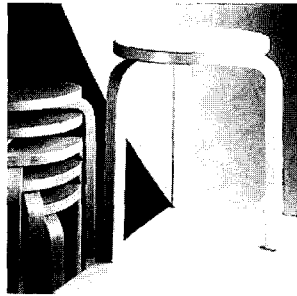
16) 필로티(1층은 기둥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2층 이상을 축조하는 방식), 옥상 정원, 자유로운 평면, 수평연속장, 자유로운 입면의 르 꼬르뷔지에 건축법칙

가구라는 사회적인 기능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그는 이러한 규격화 가구의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가구에 적용하게 된다.

1923-1933년에 파이미오(Paimio)에 있는 결핵요양소(Tuberculosis Sanatorium)¹⁷⁾를 위해 생산된 리본 모양의 프레임에 달려있는 굴곡진 합판좌석을 가진 파이미오 의자(Paimio chair)는 최초로 인간공학을 고려한 표준화 치수와 형태로 환자를 위해 디자인된 성형합판의자이다. 이 의자의 유연한 선은 알토의 곡선적인 벽들과 굴곡진 천장들과 함께 조화되어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그가 핀란드 호수의 굴곡진 외곽으로부터 디자인 모티브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적응곡목 기법의 파이미오 의자, 1931-1932



<그림 4> 스택킹 스톨, 1932-33

파이미오 의자 이후 알토와 코르호넨은 밀폐된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얇은 나무합판으로 된 굽은 구조적 지지대를 만드는 방법으로 스택킹 스톨(Stacking stool)을 제작하고 1933년 경 비푸리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인 후 마침내 생산하기에 이른다. 좌석 안쪽으로

굽혀진 세 개의 나무다리를 가진 이 작은 둥근 스톨은 오늘날에도 대중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알토는 합판화된 나무를 이용한 선의 미학을 만들어갔다. 1930년대 후반까지 그는 급격한 커브를 이용해 모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가구의 재료 및 재질을 차가운 재료인 금속에서 나무로 바꾸어 근대 가구의 폭을 넓혀 나갔다.¹⁸⁾

1938년, 뉴욕 현대 미술관의 전 큐레이터 존 맥앤드류(John MacAndrew)는 알토의 의자들은 '자세와 합판화된 나무의 성질, 심미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연구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기계적 대량생산방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였다.'라고 기술하였다.

곡목가구와 램프의 유기적인 디자인으로부터 모든 구조를 그 풍경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까지 알토가 이룬 모든 것에는 핀란드 건축가가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느꼈던 깊은 조화가 담겨 있다. 이렇듯 알토의 가구는 각 공간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핀란

17)1927년 비푸리 도서관의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알토의 설계안은 건축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동안 진행되어 가구뿐만 아니라 조명 음향시설에 이르기까지 알토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적인 구성체로서 1935년 완공되었다.

18)Domer, Peter, Design since 1945, 1945년 이후의 디자인, 강현주·조미아, 초판, 사각과 언어, 1995, p.143

드 자연의 특성과 기술적,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서 세부 디테일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종합예술의 추구로 제작된 것이다.¹⁹⁾

3.3.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비교

위의 두 절에서 다루었던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중심사상과 가구디자인의 전개 비교

	중심 사상	가구디자인의 전개
르 꼬르뷔지에	<p>국제주의</p> <p>공업제품과 같이 일정하게 규격화된 기하학적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언어를 발견하고 표현함.</p> <p>표현적이며 기하학적인 개념을 통해 포괄적인 순수주의의 기계미학을 추구. -기능주의적 합리주의</p>	<p>가구를 표준화, 조립화하여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킴.</p> <p>가구를 '앉기 위한 기계'로 간주하여 기하학적 구성을 적용함.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기능주의적이며 합리적인 가구를 디자인함(대량생산을 염두에 둠).</p>
알바 알토	<p>유기주의</p> <p>자연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형의 모티브와 생명원리를 제시함.</p> <p>-성장, 적응의 유기적 개념.</p> <p>합리주의와 유기주의 방식을 함께 조화시킴</p> <p>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낭만적 풍토주의.</p> <p>인본주의 추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포함한 포괄적 자연관.</p>	<p>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감수성으로 유기적 합리성을 이루려고 함.</p> <p>기하학적 형태와 자연의 모티브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킴</p> <p>지역적 특성을 가구 재료와 형태에 반영.</p> <p>가구를 인간과 자연경관 사이의 매개물로 표현함.</p> <p>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간공학적 가구 형태 표현.</p>

이 두 디자이너의 중심 사상을 먼저 비교해 보면, 산업화의 유산물이 기계에 의해 발전한다는 르 꼬르뷔지에의 개념과 기계를 거부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형성한 알토의 디자인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구디자인을 전개할 때에도 르 꼬르뷔지에에는 가구의 요소를 표준화, 조립화하여 체계적인 기하학적 구성을 취하나, 알토는 지역의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의 유기적인 모티브와 기하학적 형태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가구디자인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한 르 꼬르뷔지에의 기능적인 가구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안에 가구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알토는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알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본주의는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에 표현된 인본주의에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알토는 그의 가구를 자연과 반응하도록 구상하였고, 르 꼬르뷔지에에는 자연성과 인공성의 갈등에 기초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²⁰⁾).

19)배소현, Op. Cit., pp.55-59

20)Lesnikowski, Wojciech G., Op. Cit., pp.349-350

4.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대표적 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

다음은 두 작가의 대표적 가구들을 선별하여 형태, 기능, 재료 및 마감, 제작기법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4.1. 르 꼬르뷔지에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1) 바스쿨란트(Basculant), 1928년

르 꼬르뷔지에에는 자신의 건축의 실재를 위해 의자나 그 밖의 다른 소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기존의 것들은 특징이 없고 지나치게 대량생산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는 샤를로트 뻬리앙과 뻬에르 지네레(Pierre Jeanneret)와 함께 가구디자인을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디자인한 가장 초기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스쿨란트이다.

비교적 복잡한 구조와 다량의 재료로 제작된 바스쿨란트는 르 꼬르뷔지에의 초기 사상과 대조적으로 보인다. 단순하고 강한 프레임에 유연한 요소를 가미한 형태는 초기 군대 가구와 인도의 영국군대장교단에서 사용되었던 의자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르 꼬르뷔지에에는 그것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²¹⁾

<표 2> 바스쿨란트 디자인 분석


바스쿨란트	
개요	 <p>뻬리앙, 지네레와 공동 제작한 가장 초기 작품 중 하나. 초기 군대 가구와 인도의 영국군대장교단에서 사용되었던 의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음.</p>
형태	<p>논리적 구조: 불안정한 좌판 뒤의 접합 지지대를, 등받이 쪽으로 향해 있는 옆쪽 프레임의 굽어진 부분이 완벽히 논리적으로 구조를 보완.</p> <p>심미적이며 견고한 느낌: 정면도에서 바깥쪽으로 향해진 두개의 스페이스 바는 길고 매끄러운 가죽 끈과 수직재를 심미적으로 정리해 주며, 가지런히 배치된 탄력적인 솜이거죽의 좌판과 등받이는 이 의자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구조의 견고한 느낌을 부여함. 심플한 윤곽 전체적으로 심플해 보이는 윤곽은 바스쿨란트를 실제보다 더 유연하게 보이게 함.</p>
기능	<p>좌판과 등받이의 막은 스프링의 장력으로 그 형태가 유지되며 특히 등받이는 똑바른 자세에서부터 수그린 자세까지 사용자의 자세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제작됨.</p>
재료 및 마감	<p>프레임: 크롬 니켈 도금 강관 좌판, 등받이: 솜이거 가죽 팔걸이: 가죽 띠</p>
제작 기법	<p>굽힌 강관에 사각형 형태로 잘라서 붙인 앵글을 용접하여 붙여 프레임을 형성.</p>

(2) 긴 안락의자(Chaise longue), 1928년

빌 다브레의 주택에서 사용된 이 의자는 좌판 전체를 프레임으로부터 분리하여 의자의 각도와 위치를 간단하게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안락의자이다.

조랑말 가죽과 크롬 도금, 그리고 무광택 강철, 이 세 가지 표면의 대비와 가죽 머리패드 및 가죽 띠들은 이 의자가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로 보이도록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머리 위에서 발까지의 편안한 위치가 되게 각도를 조절하고 머리 쿠션을 정확한 위치에 놓게 되면 이것이 인간공학적 편안함을 위한 고전작품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²²⁾

<표 3> 긴 안락의자 디자인 분석

긴 안락의자	
개요	 <p>뻬리앙, 지네레와 공동 제작함. 빌 다브레의 주택 실내에 처음 사용. 프레임으로부터 분리하여 전체 좌판 부분을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안락의자임. 르 꼬르뷔제가 거주자의 소품이라고 표현함.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의 초기 작품.</p>
형태	<p>유려한 선과 기하학적 형태의 조화</p> <p>몸체와 다리의 유연한 선을 따라 세 개의 면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좌판은 강철 베이스 위, 두개의 두꺼운 고무로 덮은 측면 볼 위에 놓여져 있으며, 프레임의 끝을 감싸고 있고 끝 쪽은 밑으로 부드럽게 굽어있음.</p>
기능	<p>인간공학적인 디자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p> <p>조절 가능한 목받침, 좌석부분은 움직이도록 개선되어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최적의 각도를 제공함. (고무커버는 좌판이 제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사용자가 앉았을 때 이것이 미끄러질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함)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수월함.</p>
재료 및 마감	<p>프레임: 크롬 니켈 도금 강관 및 강철 베이스 좌판, 등받이: 스프링의 장력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패드가 삽입된 조랑말 가죽</p>
제작 기법	<p>굽힌 강관에 사각형 형태로 잘라서 붙인 앵글을 용접하여 붙여 프레임을 형성.</p>

(3) 그랜드 컴포트(Grand Comfort), 1928년

그랜드 컴포트는 편안함의 문제를 해결한 작품이지만, 동시에 디자인의 명쾌함을 지닌다. 이것은 마리오 벨리니(Mario Bellini)와 같이 편안함을 주요 가치로 추구하는 많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지대용 구조물 없이 자유롭게 쿠션을 배치하는 아이디어는 요즘에 더 인기가 있다. 일정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디자인에 표출되는 신건축 논리와 더불어 르 꼬르뷔지에의 아이디어는 가구의 '자유로운 형태'를 향해 디자인을 전개하는 오늘날 디자이너들에게 다수의 기초 원리를 제공하였다.²³⁾

21)Clement Meadmore, The Modern Chair, General Publishing Company, Ltd., Canada, 1997, p.60

22)Ibid., p.64



23)Ibid., pp.68-70

<표 4> 그랜드 컴폴트 디자인 분석

그랜드 컴폴트		
개요		테리앙, 지네레와 공동 제작함. 1929년 파리 가을 전시회(Salon d'Automne)에서 처음으로 전시됨. 빌 다브레의 주택 실내에 처음 사용됨. 1910년도에 디자인된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n)의 큐부스(Kubus)에서 영향을 받음. 입방체 원리(cube principle) 적용. 전체 구조가 프레임 안의 쿠션에 의해 묻혀지기보다 명백히 노출되도록 하는 의도로 제작됨.
형태	조형적인 비례를 지닌 국제적 스타일의 전형	팔걸이와 등받이, 그리고 좌판과 같은 개별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프레임 안에 맞추어진 네 개의 커다란 쿠션으로 구성됨. 조형적인 비례와 고품격 소재를 가진 이 그랜드 컴폴트는 국제적 스타일의 전형임.
기능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사용자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디자인.
재료 및 마감	금속 및 가죽	프레임: 크롬 니켈 도금된 강관 및 좌판 쿠션을 지지하는 철망 좌판, 등받이: 쿠션을 감싸고 있는 가죽 금속관과 가죽재료의 조화가 돋보이는 제품.
제작 기법	강관 용접 기법	굽힌 강관에 사각형 형태로 잘라서 붙인 앵글을 용접하여 붙여 프레임용을 형성.

(4) 회전 의자(Swivel armchair), 1928-1929년

<표 5> 회전 의자 디자인 분석

회전 의자		
개요	 1  2	테리앙, 지네레와 공동 제작함. 빌 다브레의 주택 실내에 사용됨. 크기: 1. 높이: 28.7inch(약730mm) 넓이: 23.6inch(약600mm) 2. 높이: 19.7inch(약500mm) 넓이: 18.5inch(약470mm)
형태	기하학적 형태와 금속의 유연한 선의 조화	쿠션을 가죽으로 씌 등받이 겸 팔걸이와 좌판, 그리고 이를 지지해주는 강관 프레임으로 구성됨.
기능	사용자 편의를 고려	회전의자로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쉽게 이동하고 자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디자인됨.
재료 및 마감	금속 및 가죽	프레임: 크롬 니켈 도금된 강관이나 에니멜 처리된 강관 좌판, 등받이 및 팔걸이: 쿠션을 감싸고 있는 가죽 다양한 소재의 쿠션 사용 가능 금속관과 가죽재료의 조화.
제작 기법	강관 용접 및 절곡 기법	굽힌 강관에 사각형 형태로 잘라서 붙인 앵글을 용접하여 붙여 프레임용을 형성.


4.2. 알바 알토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1) 파이미오 의자(Paimio chair, Scroll chair), 1931-1932년

알토는 일찍이 1929년에 '파이미오 요양소'를 설계하면서 그의 첫 번째 가구 '팔걸이의자 41(Arm chair 41)'을 발표한다.

의자의 전체 틀을 형성하는 곡선과 직선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것은 역동적이면서도 엄격한 직선과 섬세한 곡면이 교차하는 요양소의 평면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 의자는 자작나무와 짐성합판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자연적인 재료와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그의 걸작 중 하나이다.





<표 6> 파이미오 의자 디자인 분석

파이미오 의자		
개요		1933년 완공된 파이미오 요양소를 위해 디자인됨. 실용적이고 심리적인 섬세함이 잘 나타나 있음. 인간공학적 디자인.
형태	자연감과 친밀감이 부드러운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	파이미오 요양소의 건축은 1920년대의 합리적인 국제적 스타일을 대표하지만 알토의 이 팔걸이의자는 요양소라는 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유기적인 재료의 선택과 부드러운 형태와 더불어 충분한 기능을 지님.
기능	인간공학적 디자인	110° 각도로 기울어진 등판은 결핵환자의 호흡을 쉽게 하도록 제작되었던 것으로 팔걸이의 앞쪽 곡선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코일 스프링의 원리로 제작되었던 등판과 좌판은 1/4인치(약 6.3mm)의 얇은 두께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힘과 탄력을 가지고 있으며 등판 윗부분에 돌린 부분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자의 도장된 표면이 얇은 사람의 목 부분에 직접 맞닿는 곳으로서 통풍구의 용도로 디자인되었짐.
재료 및 마감	핀란드의 천연재료	프레임: 자작나무 위에 투명도장 마감. 좌판: 굽어진 자작나무 합판 위에 흰색이나 블랙도장 마감. 이 파이미오 의자에 사용된 목재의 자연감과 친밀감이 부드러운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과 더불어 병원의 차가움을 완화시키는 적절한 소재가 됨.
제작 기법	적층곡목기법 (Laminated bent Wood)	나무를 제작 의도에 따라 일정한 두께로 켄 후 원하는 형태의 틀에 한 장씩 접착제를 발라 원하는 두께만큼 같은 결 방향으로 쌓은 후에 압력과 열을 가하는 기법으로 대체로 곡선으로 절곡시킨 형태 제작시 사용됨(이것은 나무 골재 자체를 휘는 것보다 강도와 탄력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임). 1930년대 초 알토가 가구기술자이자 제작자인 오토 코르호넨과 함께 자작나무를 3mm 두께로 켄 후 일곱 장 정도를 접합하여 구부리는 실험제작을 통해 발전시킨 기법으로 알토가 디자인한 제품 제작시 주로 사용되어온 성형 기법 중의 하나임.

(2) 캔틸레버 의자(Cantilever chair), 1929-1946년

1929년 알토는 목재로 만든 캔틸레버 의자를 디자인하였으나 생산에는 실패했다. 그 후 4년간의 연구와 실험으로 1933년 캔틸레버 팔걸이의자가 생산되었으며 이것 또한 파이미오 요양소에서 처음 사용되어졌다.



<표 7> 캔틸레버 의자 디자인 분석

캔틸레버 의자	
개요	 <p>1933년 완공된 파이미오 요양소를 위해 디자인됨. 알토는 레이네이트 받침에 견고함을 주기 위하여 좌석을 내려서 부착하여 팔걸이의자로 변형시켰으며 하중을 많이 받는 레이네이트 다리의 하부에 견고함을 주기 위하여 한 장의 레이네이트를 덧붙임으로써 제작에 성공함. 제작과정도 넓은 자작나무 레이네이트를 한번에 성형하여 필요한 쪽으로 잘라내는 방식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p>
	 <p>알토는 위 초기 디자인을 발전시켜 1936년 C자형의 다리 형태를 한 캔틸레버 의자에 업홀스터리를 사용하여 머리받침이 있는 의자를 개발.</p>
	 <p>이후 변형된 캔틸레버 구조는 1937년 폭 50mm의 면직물이나 가죽띠를 그물처럼 엮은 좌판을 가진 라운지 চে어로 제작되어짐</p>
	 <p>1946년 캔틸레버 의자에 알토는 나사로 부착되어진 면직물을 엮어 이 기법과 함께 사용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천연직물이나 등나무, 비닐, 가죽 또는 캔버스 천이 사용되어짐.</p>
형태	자연감과 친밀감이 부드러운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
기능	인간공학적인 디자인
재료 및 마감	핀란드의 천연재료
제작 기법	목재를 이용한 캔틸레버 기법 Cantilever

(3) L-다리 스톨(Stacking stool, Aalto's leg stool), 1927-1935년



1930년 최초로 시작한 실험을 통해 완성된 L-다리는 '알토 다리'로도 불려진다. 비퓨리 도서관의 가구디자인 계획 중의 일 부분으로서 1935년 알토는 이 의자의 제작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표 8> L-다리 스톨 디자인 분석

L-다리 스톨	
개요	  <p>견고하고 경제적인 알토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좌판이나 탁자 아래에 나사가 고정되어진다. 이로써 알토는 수직 다리와 수평 판의 새로운 접합법을 발견하였으며 이 스테킹 스톨은 혁신적인 접합부분의 효율성을 충분히 실현시킨 가구임.</p>
형태	<p>기하학적이면서 유기적인 선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킴.</p> <p>이 의자는 <알토 다리> 3개와 1개의 둥근 좌판인 단지 4개의 부품으로 구성.</p> <p>크기 어린이용: 지름 350mm, 높이 380mm 어른용: 지름 350mm, 높이가 440mm.</p>
기능	공간 활용도 고려 좌판에 120° 각도로 다리가 부착되어 쌓아올리기에 간편하도록 제작됨. 기본적인 표준 부품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대처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의자, 테이블로 변형 가능.
재료 및 마감	다양한 재료 사용 가능 다리: 니스칠 한 천연 자작나무 좌판: 소재와 색상이 다양(선택사항) 자작나무 합판, 리놀륨, 레이네이트, 업홀스터리, 특수 제작 걸리 지작 나무)
제작 기법	수직 다리와 수평 판의 접합법 수직 다리와 수평 판을 효율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법.

(4) X-다리 스톨(Fan leg stool), 1929-1946년

<표 9> X-다리 스톨 디자인 분석

X-다리 스톨	
개요	  <p>부채꼴 모양의 다리는 앞의 L-leg를 기초 작업으로 하여 제작됨. 1947년에 알토는 Y자 다리를 디자인하는데, 이 다리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 접합되는 구조에서 변형되어 사각형 좌판의 두 측면을 따라 골격을 형성한다. 7년 후, 알토는 1954년 스톡홀름의 NK(Nordiska Kompalet)백화점에서 X-다리 스톨을 선보이며 디자인의 영감을 한 젊은 여인의 주름치마에서 얻었다고 설명. 이 부채꼴 다리의 접합구조는 현대 가구의 접합 방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됨.²⁴⁾</p>
형태	<p>기하학적이면서 유기적인 선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킴.</p> <p>3개의 다리를 가진 둥근 스톨의 치수는 지름이 380mm이고 높이가 440mm임. 후에 정사각형의 위판과 네 개의 다리를 가진 형태 외에도 육각형의 좌판에 3개의 다리를 가진 형태로 다양하게 변형됨. (X-자 다리는 알토의 건축 형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서독의 볼프스부르크(Wolfsburg)교구 센터 곡면 천장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p>
기능	견고함과 심미성을 고려 알토의 기존 가구와는 다르게 많은 부품과 복잡한 조립 과정으로 제작되었으나 아름다운 접합부분이 아름답게 처리됨.
재료 및 마감	다양한 재료 사용 가능 다리: 자작나무 좌판: 소재와 색상이 다양(선택사항) 물푸레나무 무늬목, 검정 가죽 업홀스터리, 천연가죽 업홀스터리)
제작 기법	수직 다리와 수평 판의 심미적인 접합 처리법 1947년에 알토는 L-다리를 기초 작업으로 하여 Y-다리를 디자인하는데, 이 다리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 접합되는 구조에서 변형되어 사각형 좌판의 두 측면을 따라 골격을 형성함. 후에 부채꼴 모양으로 완성됨.

24)Goran, Schildt, Alvar Aalto The decisive years, Rizzoli, New York, 1986, pp.92-121

4.3.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위의 두 절에서 다루었던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0>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분석도

	르 꼬르뷔지에	알바 알토
개념	가구를 조형적 작품으로서 이해함. 단순성과 비례의 아름다움을 중시 (입방체 원리 적용). 사용자 편의 중심의 디자인.	가구를 인간과 자연경관 사이의 매개물로 이해함. 민족성, 풍토성을 고려한 유기적 미를 추구. 인간 중심의 디자인.
형태	기능적 원리와 기하학적 구성에 기초를 두고 디자인 함(기능주의적 합리주의). 구조적 요소를 노출시킴. - 기계미의 표출. 비례적 아름다움을 제공.	기하학적이면서 자연의 유기적인 선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킴.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
기능	표준화와 조립화 및 선택사양의 다양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성 강조.	공간 활용도 고려 인간공학적 디자인(인간의 행동과 형태를 고려).
재료 및 마감	금속과 가죽을 위주로 한 신소재 사용.	전통적 토착재료를 위주로 사용.
제작 기법	금속 절곡 및 용접 기법	적층곡목기법 및 목재 접합기법

먼저 르 꼬르뷔지에와 알토의 가구에 대한 개념을 비교해보면, 르 꼬르뷔지에에는 가구를 하나의 조형적 작품으로 이해하였으며, 알토는 가구를 인간과 자연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이해하고 표현하였다.

단순성과 비례적 미를 중시한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들은 세련된 기하학적 구성들로 형태를 이루며 구조적 요소들이 노출되고 기계적 미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능적 원리와 기하학적 구성에 기초를 둔 새로운 생산 방법-용접, 조립화, 표준화-으로 제작되고 금속이나 가죽 같은 신소재를 사용된 가구가 주류를 이룬다.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는 필요조건들과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크기, 설치, 위치, 불박이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가구를 표준화, 조립화하여 효율적으로 제작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토는 전통적인 재료와 자연적인 감성을 그의 가구에 나타냄으로써 지역적이며 민족적인 특징을 표현하였다. 민족적인 성향과 국제적인 경향들이 유기적인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의 조화로 구성됨으로써 그의 독특한 지역주의적 가구디자인 특성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토속적 재료-주로 자작나무-가 그의 가구의 주재료로 사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적층곡목기법이 주된 기법으로 처리되었다.

알토의 가구에서는 시각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기하학적 요소와 금속을 위주로 한 여러 재료들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주의 스타일의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에서는 느껴

지지 않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는 그의 가구가 핀란드의 전통적인 재료와 유기적인 선으로 인해 자연스러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과 합리주의를 중시한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는 실질적으로 사용 상의 편안함과 효율성, 비례미를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사용자의 만족도와 조형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 주었다.

5. 결론

결정적 모더니즘 시대의 디자인은 초기 모더니즘 시대의 요소주의, 자연주의를 발전시켜 나간 국제주의와 유기주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러스킨(Ruskin)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사상으로부터 아르누보로 연결된 초기 모더니즘 시대의 디자이너들이 단지 장식이나 형태의 표현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대의 대표적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품을 완전한 종합체로 인식하고 발전시켰다.

신재료들을 사용한 합리주의자인 르 꼬르뷔지에는 국제주의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순수주의 기계미학을 추구하였으며, 기하학적인 의지를 표상하였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기능적인 디자인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유기주의를 추구한 낭만적 풍토주의자인 알토는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구성을 조화시키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구 제작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가구디자인의 특성을 비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화의 부산물이 기계에 의해 발전한다는 르 꼬르뷔지에의 디자인 개념과 기계를 거부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형성한 알토의 디자인 개념은 두 사람의 사상 중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이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한 르 꼬르뷔지에의 기능적인 가구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안에 가구를 인간 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알토는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② 형태적으로, 단순성과 비례적 미를 중시한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들은 세련된 기하학적 구성들로 형태를 이루며, 구조적 요소들이 노출되고 기계적 미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알토의 가구는 자연과 인간의 형태를 반영한 유기적인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가 합리적으로 조화됨으로써 시각적 편안함과 알토 자신의 독특한 지역주의적 특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

③ 기능적으로, 표준화, 조립화된 르 꼬르뷔지에의 가구는 필요조건들과 용도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반면, 알토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층식 의자를 개발하였

으며, 인체의 형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더욱 편안하게 하였다.

④ 재료와 기술면에 있어서, 르 꼬르뷔지에가 주로 금속이나 가죽과 같은 신소재 사용과 그에 따른 생산 방법-용접, 조립법, 표준화-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알토는 핀란드의 전통적인 재료-자작나무-를 중심으로 새로운 곡목기술과 목재 접합기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르 꼬르뷔지에와 알토는 건축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사상을 자신들이 디자인한 가구로 연결시켜 그것을 보다 명확히 표출하였으며, 그 시대의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새로운 기법을 적용한 가구디자인을 연구하고 인간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으로 현대 가구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 조류, 기문당, 1994
2. Goran, Schildt, Alvar Aalto The decisive years, Rizzoli, New York, 1986
3. Le Corbusier, The City of Tomorrow, Dover Publication, 1987
4. Marcus, George H., Le Corbusier, The Monacelli Press, 2000
5. Meadmore, Clement, The Modern Chair, General Publishing Company, Ltd., Canada, 1997
6. Ching, Francis D. K., 건축의 형태, 공간과 규범, 황연숙 역, 도서출판 국제, 서울, 1997
7. Domer, Peter, Design since 1945, 1945년 이후의 디자인, 강현주·조미아 역, 초판, 사각과 언어, 1995
8. Lampugnani, M., 현대건축론, 윤재희·지연순 역, 세진사, 1992
9. Lesnikowski, Wojciech G,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박순관·이기민 역, 도서출판 국제, 1993
10. 김광현, Le Corbusier건축의 자기언급적 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9권 2호, 1993
11. 김진숙, Cubism과 Le Corbusier 작품의 관련성 고찰, 전남대 석사논문, 1996
12. 배소현, 현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가구에 나타난 모더니즘, 영남대 석사논문, 1996
13. 이은주, 알바 알토(Alvar Aalto)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5
14. 전병권, F.L.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형태구성체계 비교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4
15. 한영호·김태환·이진영, 금속가구 가공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제안 및 교육자료 개발-금속가구디자인의 역사적 고찰, 산업디자인협회, 2000
16. Porphyrios, Demetri, Imitation and Convention in Architecture, 건축과 환경, 9107

참고사이트

<http://www.artek.fi/en/index.html>
<http://www.eurofurniture.com>

<접수 : 2004. 8. 30>